
2024년 개인회생사건 통제조사 결과보고서



새 출발 다짐들

2025. 4. 15.

서울회생법원



2024년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5. 4.

서울회생법원

I. 개요

가. 필요성 및 진행 경과

- 회생위원이 작성하는 업무수행결과보고서의 기재형식 및 내용이 다양하여 일원화, 정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더불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일정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개인회생과 관련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2019. 10. 구성된 '통계 TF'에서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개선방안¹⁾'을 마련하였고, 2020. 1. 구체적인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여 2020. 1. 부터 시행하였음 → 2020년부터 매년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통계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나. 대상사건 및 사건 수

■ 대상사건

-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보고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 수집된 사건 수

- 총 22,324건

1)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별도의 표 형식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보고』를 작성하여 추가하는 방식임



II. 2024년 개인회생사건 통계 결과

1. 채무자의 채무 총액²⁾ 관련

■ 산출 결과

항 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무 총액 중위값	약 8,524	약 8,871	약 9,696	약 9,474
채무 총액 평균값	약 12,721	약 13,060	약 15,167	약 14,574

채무 총액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000만 원 이하	19.7%	16.2%	12.5%	11.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9.0%	41.0%	39.5%	42.1%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4.3%	27.4%	29.8%	29.4%
2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8.9%	7.8%	8.4%	7.5%
3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4.0%	3.1%	3.5%	3.3%
4억 원 초과	4.1%	4.5%	6.3%	5.9%

채무 총액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15.6%	18.6%	20.9%	21.1%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8.8%	8.7%	8.8%	8.3%

■ 분석

- 채무자 중 75%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채무 총액을 부담하고 있음
- 채무 총액 중위값은 9,474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약 8,524만 원 → 약 8,871만 원 → 약 9,696만 원)하다가 2024년 소폭 감소(약 9,474만

2) 채무 총액은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원)하였으나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편임

-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19.7% → 16.2% → 12.5% → 11.8%)인 반면,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24.3% → 27.4% → 29.8% → 29.4%)임
- 채무 총액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 증가(15.6% → 18.6% → 20.9% → 21.1%)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

2. 연령대별 등 통계

■ 산출 결과

- 연령대별 채무자의 비율

연령[만 나이 기준]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9세 이하	14.1%	15.2%	16.9%	13.4%
30세 ~ 39세	31.0%	31.4%	30.4%	28.4%
40세 ~ 49세	29.9%	27.9%	28.5%	28.8%
50세 ~ 59세	18.3%	18.8%	18.0%	20.9%
60세 이상	6.7%	6.7%	6.2%	8.5%

- 성별에 따른 채무자의 비율

성 별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 성	61.1%	61.0%	60.0%	56.8%
여 성	38.9%	39.0%	40.0%	43.2%

■ 분석

- 전체 채무자 중 30~40대의 비율이 57.2%로 절반 이상임
- '29세 이하'(16.9% → 13.4%) 및 '30대'(30.4% → 28.4%) 채무자의 비율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50대'(18% → 20.9%) 및 '60세 이상'(6.2% → 8.5%) 채무자의

비율은 2023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한편 '29세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14.1% → 15.2% → 16.9%)하다가 2024년 감소(13.4%)하였음

- '남성' 채무자의 비율이 56.8%로 '여성'(43.2%) 보다 13.6% 높음

- '남성' 채무자의 비율은 감소(61.1% → 61% → 60% → 56.8%)하고, '여성' 채무자의 비율은 증가(38.9% → 39% → 40% → 43.2%)하는 추세임

3. 부양가족 등 관련

■ 산출 결과

- 채무자 및 부양가족 수

채무자 및 피부양자 수	비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	76.8%	78.0%	77.7%	79.1%
1인 초과 2인 이하	17.9%	16.8%	17.1%	16.6%
2인 초과 3인 이하	4.4%	4.4%	4.3%	3.5%
3인 초과 4인 이하	0.8%	0.7%	0.8%	0.7%
4인 초과	0.1%	0.1%	0.2%	0.1%

-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	비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혼	33.3%	31.0%	34.9%	36.2%
미혼	66.7%	69.0%	65.1%	63.8%

■ 분석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수가 1인'인 채무자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함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수가 1인'인 채무자가 2023년(77.7%) 대비 1.4% 증가한 반면, 그 외 1인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 ‘미혼’인 채무자의 비율은 63.8%로 ‘기혼’(36.2%)보다 27.6% 높음
 - 2022년 이후 ‘미혼’인 채무자의 비율은 감소(69% → 65.1% → 63.8%)하고, ‘기혼’인 채무자의 비율은 증가(31% → 34.9% → 36.2%)하는 추세임

4. 생계비 관련

▣ 산출 결과

- 생계비 인정 범위³⁾

생계비 인정 범위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56.5%	55.8%	57.5%	59.6%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6.3%	37.1%	35.4%	34.1%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5.3%	5.4%	5.3%	4.6%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9%	1.7%	1.9%	1.7%

-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구 분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가 생계비가 없는 경우	77.1%	75.7%	75.1%	75.2%
추가 생계비가 있는 경우	22.9%	24.3%	24.9%	24.8%

3)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다음과 같음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 액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만 원 미만	7.9%	6.9%	7.6%	8.3%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23.2%	23.3%	22.6%	22.7%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32.9%	29.3%	29.0%	26.5%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22.4%	25.2%	25.9%	22.3%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7%	4.8%	4.7%	9.2%
50만 원 이상	7.9%	9.3%	8.3%	8.6%
100만 원 이상		1.2%	1.9%	2.4%

■ 분석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4년 기준 1,337,067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은 채무자의 비율이 59.6%로 절반 이상임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생계비를 인정받은 채무자의 비율이 2022년부터 소폭이나마 증가(55.8% → 57.5% → 59.6%)하는 추세임
- ‘추가 생계비가 없는’ 채무자의 비율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추가 생계비가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24.8%임
 - 추가 생계비가 있는 사건 중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을 인정받은 사건의 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32.9% → 29.3% → 29% → 26.5%)하였고,
 -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을 인정받은 사건의 비율은 9.2%로 2023년(4.7%)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음

5. 월수입 관련

■ 산출 결과

● 채무자들의 월수입

항 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월수입 중위값	약 195	약 209	약 225	약 230
월수입 평균값	약 218	약 235	약 251	약 256

월수입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0만 원 이하	0.7%	0.5%	0.3%	0.2%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18.4%	12.5%	7.8%	5.3%
1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35.5%	31.9%	27.9%	25.9%
20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21.3%	24.6%	27.1%	29.7%
25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11.1%	13.7%	15.8%	17.9%
300만 원 초과	13.0%	16.8%	21.2%	21.0%

● 채무자들의 소득 활동 종류

분 류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업소득자	15.7%	15.4%	20.3%	20.0%
급여소득자	83.8%	84.3%	79.0%	79.1%
혼합	0.5%	0.4%	0.7%	0.9%

■ 분석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79.1%가 '급여소득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채무자의 61.1%가 월수입 '250만 원' 이하임
-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약 230만 원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약 195만 원 → 약 209만 원 → 약 225만 원 → 약 230만 원)하였음

-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2023년(약 225만 원) 대비 약 2.2% 증가하여, 2023년 증가율(약 7.7%) 대비 그 비율이 감소하였음

- 월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은 31.4%로 전년(36%) 대비 약 4.6% 감소하였고, '200만 원 초과'인 채무자의 비율은 68.6%로 전년(64.1%) 약 4.5% 증가하였음

6. 채무자의 재산 관련

■ 산출 결과

● 청산가치

항 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청산가치 중위값	약 527	약 690	약 929	약 854

청산가치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0만 원 이하	26.6%	22.4%	18.8%	19.3%
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2.5%	21.1%	18.9%	20.1%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2.9%	14.3%	14.3%	14.4%
1,0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8.2%	9.0%	10.8%	11.0%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6.2%	6.9%	7.7%	7.8%
2,000만 원 초과	23.6%	26.2%	29.6%	27.4%

● 부동산 소유 상황

구 분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	7.9%	7.2%	9.8%	9.6%
소유 부동산 없는 경우	92.1%	92.8%	90.2%	90.4%



● 임대차보증금 보유 상황

구 분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43.6%	42.3%	44.7%	47.5%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56.4%	57.7%	55.3%	52.5%

■ 분석

- 채무자의 53.8%가 청산가치 1,000만 원 이하임
- 청산가치 중위값은 약 854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약 527만 원 → 약 690만 원 → 약 929만 원)하다가 2024년 소폭 감소(약 854만 원)하였음
- 채무자의 90.4%가 '소유 부동산이 없고', 52.5%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47.5%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42.3% → 44.7% → 47.5%)하였음



7. 변제율⁴⁾

항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변제율 중위값	38%	38%	36%	34.2%

변제율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 미만	4.1%	4.3%	4.9%	5.4%
10% 이상 20% 미만	17.2%	15.6%	16.2%	17.5%
20% 이상 30% 미만	16.7%	17.2%	18.8%	19.4%
30% 이상 40% 미만	14.5%	15.0%	16.0%	15.3%
40% 이상 50% 미만	12.8%	13.4%	12.6%	12.1%
50% 이상 60% 미만	10.3%	10.8%	9.6%	9.0%
60% 이상 70% 미만	7.2%	7.7%	6.9%	6.7%
70% 이상 80% 미만	5.2%	5.0%	4.6%	4.4%
80% 이상 90% 미만	3.5%	3.3%	3.1%	3.1%
90% 이상	8.5%	7.7%	7.2%	7.1%

■ 분석

- 채무자의 69.7%가 변제율 50% 미만이고, 변제율이 100%인 사건은 4.9%임
- 채무자들의 변제율 중위값은 34.2%로 2021년 이후 감소(38% → 38% → 36% → 34.2%)하는 추세임

4) 변제율은 채권현재액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8. 변제기간 단축 사건

■ 산출 결과

- 2024. 1. ~ 12. 업무수행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된 사건은 총 2,376건임
- 단축사유별 통계

적용 사유	2023년		2024년	
	비율(%)	평균 단축기간	비율(%)	평균 단축기간
원금 100% 변제	30.7	27개월	24.9	27개월
65세 이상 노인	3.6	25개월	5.1	25개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0.6	26개월	0.9	26개월
30세 미만의 청년	64.5	25개월	64.5	25개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0.3	24개월	0.6	26개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0.4	26개월	1.2	26개월
전세사기피해자	0		2.8	25개월

■ 분석

- 3년 미만 변제기간 단축사건은 총 2,376건으로 전체 대상사건(총 22,324건) 중 약 10.6%의 비중을 차지하고, 2023년(총 1,590건) 대비 약 49.4% 증가하였음
- 단축사유 중 ‘원금 100% 변제’와 ‘30세 미만의 청년’의 비율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30세 미만의 청년’의 비율이 64.5%로 가장 많음
 - 전체 20대 채무자(2,990명) 중 약 51.8%(1,548명)가 ‘30세 미만’을 사유로 변제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았음



Ⅲ. 특정 채무자들에 대한 통계 결과

1. 연령대별 통계

가. 산출 결과

1) 채무 총액

항 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연령 채무 총액 중위값	약 8,524	약 8,871	약 9,696	약 9,474
전체 연령 채무 총액 평균값	약 12,721	약 13,060	약 15,167	약 14,574

구 분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 위 값	20대	약 5,556	약 5,949	약 6,834	약 6,407
	30대	약 8,201	약 8,401	약 9,525	약 8,999
	40대	약 10,086	약 10,569	약 11,385	약 10,701
	50대	약 11,099	약 10,754	약 11,597	약 10,791
	60대	약 9,390	약 9,787	약 9,658	약 9,734
	70대 이상	약 8,283	약 7,589	약 8,512	약 7,553
평 균 값	20대	약 6,850	약 7,110	약 8,281	약 7,813
	30대	약 10,987	약 11,004	약 13,276	약 11,902
	40대	약 14,376	약 15,186	약 17,925	약 16,861
	50대	약 16,510	약 16,382	약 19,947	약 17,693
	60대	약 15,397	약 16,407	약 16,833	약 17,372
	70대 이상	약 14,750	약 16,839	약 15,172	약 14,464



2) 월수입

항 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연령 월수입 중위값	약 195	약 209	약 225	약 230
전체 연령 월수입 평균값	약 218	약 235	약 251	약 256

구 분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 위 값	20대	약 189	약 202	약 216	약 223
	30대	약 203	약 220	약 232	약 236
	40대	약 200	약 223	약 239	약 240
	50대	약 185	약 200	약 216	약 223
	60대	약 171	약 182	약 194	약 208
	70대 이상	약 169	약 187	약 188	약 201
평 균 값	20대	약 196	약 209	약 224	약 231
	30대	약 222	약 238	약 253	약 257
	40대	약 231	약 253	약 272	약 271
	50대	약 217	약 234	약 256	약 257
	60대	약 189	약 202	약 213	약 233
	70대 이상	약 184	약 216	약 203	약 216

3) 변제율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연령 변제율 중위값	38%	38%	36%	34.2%

구 분		변제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 위 값	20대	52%	44%	42%	38%
	30대	43%	43%	39%	40%
	40대	33%	34%	31%	31%
	50대	31%	33%	32%	31.4%
	60대	28%	28%	29%	31%
	70대 이상	25%	31%	26%	30%

나. 분석

-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6,407만 원)이 가장 낮고, 50대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10,791만 원)이 가장 높음
 - 60대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만 소폭 증가(약 9,658만 원 → 약 9,734만 원)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감소하였음
- 월수입 중위값은 40대(약 240만 원) 채무자가 가장 높고, 70대 이상(약 201만 원) 채무자가 가장 낮음
- 변제율 중위값은 30대(40%) 채무자가 가장 높고, 70대 이상(30%) 채무자의 그 값이 가장 낮음
 - 20대(38%), 30대(40%) 채무자의 변제율 중위값이 다른 연령대의 값보다 높은 편임

2. 영업소득자 관련

가. 사건 수

- 2024. 1. ~ 12. 업무수행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영업소득자 사건은 총 4,462건으로, 2023년(3,940건) 대비 약 13.2% 증가하였음

나. 채무 총액

■ 산출 결과

항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업소득자 채무 총액 중위값	약 11,222	약 11,402	약 12,391	약 12,489

채무 총액	비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000만 원 이하	11.7%	11.3%	9.0%	7.4%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2.6%	31.4%	29.3%	28.8%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31.4%	33.8%	35.2%	37.4%
2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1.8%	12.0%	12.6%	11.8%
3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6.4%	4.3%	5.0%	4.6%
4억 원 초과	6.1%	7.2%	8.9%	10.0%

■ 분석

- 영업소득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12,489만 원으로 급여소득 채무자의 중위값(약 8,940만 원)보다 약 39.7% 정도 높음
- 영업소득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약 11,222만 원 → 약 11,402만 원 → 약 12,391만 원 → 약 12,489만 원)하였음

다. 월수입

■ 산출 결과



항 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업소득자 월수입 중위값	약 186	약 195	약 206	약 212

월수입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0만 원 이하	0.9%	0.7%	0.3%	0.1%
100만 원 초과 ~ 150만 원 이하	26.0%	18.5%	11.7%	6.8%
1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32.4%	35.6%	34.4%	35.2%
2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18.6%	19.1%	23.0%	26.8%
2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11.0%	11.6%	12.7%	13.3%
300만 원 초과	11.1%	14.4%	17.8%	17.8%

■ 분석

- 영업소득 채무자의 68.9%가 월수입 '250만 원' 이하임
- 영업소득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이 약 212만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약 186만 원 → 약 195만 원 → 약 206만 원 → 약 212만 원)하고 있음
 - 급여소득 채무자의 월수입 중위값(약 234만 원)과 비교하여 약 22만 원 낮음
- 월수입이 '100만 원 초과 ~ 150만 원 이하'인 영업소득 채무자의 비율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격하게 감소(26% → 18.5% → 11.7% → 6.8%)한 반면, 월수입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영업소득 채무자의 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라. 변제율

■ 산출 결과

항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업소득자 변제율 중위값	29%	28%	26%	26%

변제율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 미만	5.2%	6.8%	7.8%	7.5%
10% 이상 20% 미만	23.9%	23.9%	26.5%	27.8%
20% 이상 30% 미만	22.0%	21.7%	22.3%	22.6%
30% 이상 40% 미만	14.7%	14.5%	15.5%	15.5%
40% 이상 50% 미만	11.8%	9.9%	9.1%	8.7%
50% 이상 60% 미만	6.8%	7.4%	5.6%	5.4%
60% 이상 70% 미만	4.8%	4.6%	4.1%	4.0%
70% 이상 80% 미만	3.5%	3.4%	3.0%	2.3%
80% 이상 90% 미만	1.9%	2.4%	1.8%	2.0%
90% 이상	5.4%	5.3%	4.4%	4.2%

■ 분석

- 영업소득 채무자의 변제율 중위값이 26%로, 급여소득 채무자의 변제율 중위값(37%)에 비해 11% 낮음
- 영업소득 채무자의 변제율 중위값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폭이나마 감소(29% → 28% → 26% → 26%)하였음
- 영업소득 채무자의 57.9%가 ‘변제율 30% 미만’임



3. 2024년 최저임금법상 월급(2,060,740원)⁵⁾ 이하인 채무자

가. 산출 결과

1) 사건 수

- 2024. 1. ~ 12. 업무수행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월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인 사건은 총 7,855건(35.2%)으로, 2023년(36.6%)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하였음

항 목	최저임금 이하 채무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율	41.6%	37.8%	36.6%	35.2%

2) 채무 총액

항 목	액수(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무총액 중위값(최저임금 이하)	약 6,968	약 7,267	약 8,124	약 8,313

채무 총액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000만 원 이하	25.6%	25.6%	20.6%	18.0%
5,000초과 1억 원 이하	43.0%	43.0%	42.7%	43.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1.0%	21.0%	24.9%	26.6%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5.6%	5.6%	6.3%	6.1%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2.2%	2.2%	2.5%	2.4%
4억 원 초과	2.6%	2.6%	3.0%	3.4%

5)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4년 시급은 9,860원으로 이를 월급(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 시간으로 산정한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임

3) 변제율

항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변제율 중위값(최저임금 이하)	26%	26%	24%	22.8%

변제율	비 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 미만	9.2%	7.5%	8.2%	9.6%
10% 이상 20% 미만	27.5%	26.2%	27.1%	29.7%
20% 이상 30% 미만	20.6%	24.8%	26.4%	27.5%
30% 이상 40% 미만	15.0%	16.1%	16.9%	14.9%
40% 이상 50% 미만	9.5%	10.2%	9.0%	8.4%
50% 이상 60% 미만	6.8%	5.7%	5.4%	4.0%
60% 이상 70% 미만	3.6%	3.5%	2.5%	2.3%
70% 이상 80% 미만	2.6%	1.9%	1.6%	1.4%
80% 이상 90% 미만	1.4%	1.1%	1.0%	0.8%
90% 이상	3.8%	3.0%	2.0%	1.4%

나. 분석

- 월수입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41.6% → 37.8% → 36.6% → 35.2%)하고 있는 추세임
- 2024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2,060,740원) 이하를 월수입으로 신고한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8,313만 원으로, 전체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인 약 9,474만 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 이하를 월수입으로 신고한 채무자들 중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25.6% → 25.6% → 20.6% → 18%)하는 추세인 반면,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21% → 21% → 24.9% → 26.6%)하는 추세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 이하를 월수입으로 신고한 채무자들 중 '변제율



30% 미만'인 사건의 비율이 66.8%로, 전체 채무자들 중 '변제율 30% 미만'인 사건의 비율인 42.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IV. 종합 통계 결과

-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9,474만 원, 월수입 중위값은 230만 원, 변제율 중위값은 34.2%임
 -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2023년 대비 감소(9,696만 원 → 9,474만 원)하고, 월수입 중위값이 증가(225만 원 → 230만 원)하였음에도 변제율 중위값이 소폭 감소(36% → 34.2%)하였음
-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30~4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이 전체의 5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최근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14.1% → 15.2% → 16.9%)하였다가 2024년 감소(13.4%)하였음
 - 20~30대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반면, 변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 채무자의 월수입이 가장 낮고 변제율도 높지 않아 전 연령의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수가 1인'인 채무자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혼'(63.8%)인 채무자가 '기혼'(36.2%)보다 많으며, '남성'(56.8%) 채무자가 '여성'(43.2%)보다 많음
-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약 230만 원으로 2023년(약 225만 원) 대비 약 2.2% 증가하였음
 - 영업소득 채무자의 월수입 중위값이 212만 원으로 급여소득 채무자의 중위값(약 234만 원)보다 낮고, 영업소득 채무자의 변제율 중위값이 26%로 급여소득 채무자의 변제율 중위값(3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급여소득 채무자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채무자들의 청산가치 중위값은 약 854만 원으로, 채무자의 90.4%가 소유 부동산이 없고, 52.5%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임
- 생계비와 관련하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채무자가 59.6%로 절반 이상이며, 추가 생계비가 없는 사건이 전체의 75.2%임